

라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남경제 영향과 대응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외거래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원인이 되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전쟁이 가져온 경제환경 변화가 충남경제에 미친 영향과 당시 피해가 발생한 산업을 중심으로 이후 경과 점검을 실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1] 경과보고(수시보고 요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2월 발발)
 - 잠재적 위협요인 ① 에너지가격 급등 ② 곡물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반적 경과 및 교역동향 보고(2.16)
 - 우크라이나 판매법인 4곳, 서비스법인 1곳, 해외지사 1곳으로 경제협력관계 미약
 - 러시아는 자동차관련 기업과 식료품 생산법인 입지, 충남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편
 - 충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교역 동향
 - * 러시아(금년 7월 기준) : 수출 비중(0.004%), 수입 비중(0.03%) / 주요 수입품목 : 석탄, 석유제품, 원유
 - * 우크라이나(금년 7월 기준) : 수출 비중(0.2%), 수입 비중(6.7%) / 주요 수입품목 : 식물성물질, 목재류
 - 각 국가 진출 기업 분석 및 도내 실제 거래기업 모니터링
- 피해사례(수출) : 주로 수산물(김) 수출 대금 결제 지연(3.2일)
 - 수입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

피해사례	기업명	비고
매출감소 예상	(주)신호인더스트리 / (주)태양	낮은 수출 비중
대금결제 지연	영신식품 : 약 4만 5천불 갯바위식품(주) : 러시아 5만불, 우크라이나 5만불	김산업
수출물량 회수	에경제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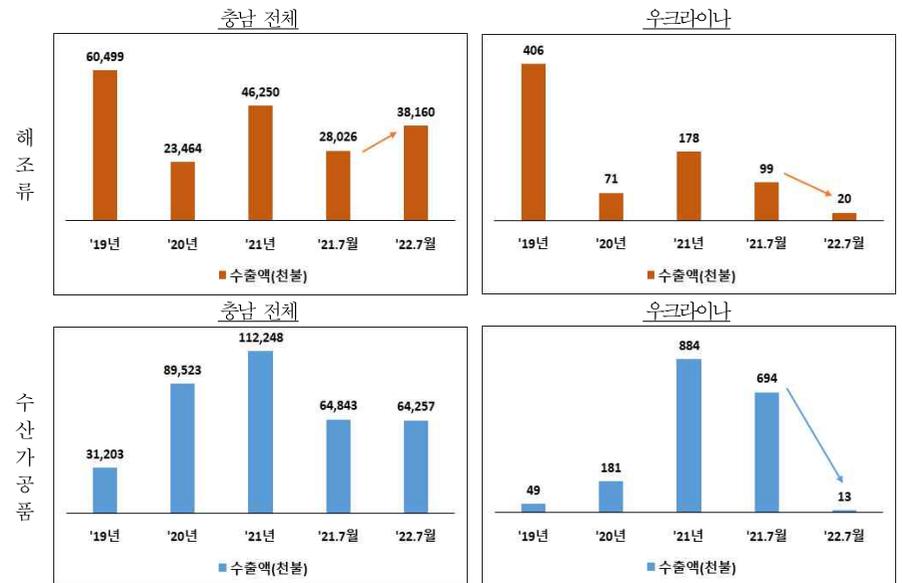
-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중단, 시멘트 등 건설업 동향 모니터링(4.29)
 - 금년 초 철근 품귀 현상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에 차질이 발생 * 러시아산 유연탄은 주로 시멘트 공정에 사용
 -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이 집적한 곳은 강원도, 충남은 소규모 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2] 지역경제의 직·간접적 영향

[직접적인 수출입 영향은 미미]

- (교역) 직접적인 영향 미미(글로벌 교역흐름과 유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산가공품, 해조류 수출도 정상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체 교역에 미친 영향은 미미
 - * 글로벌 금융위기, 반도체 경기 둔화, 코로나19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은 無
 -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 흐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액 증가에 간접적 영향은 미침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산가공품의 우크라이나 수출은 금년 1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나 충남 전체 수산가공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9%(64백만불) 소폭 감소, 해조류는 36.2%(38백만불) 증가하며 호조
 - * 우크라이나로 수출(전년동기대비) : 수산가공품(-98.1%), 해조류(-77.6%)
 -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충남과의 낮은 교역 비중으로 전반적인 지역 경제 영향은 미미
 -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산가공품도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으로 위기를 극복

[우크라이나 주요 피해 수출 품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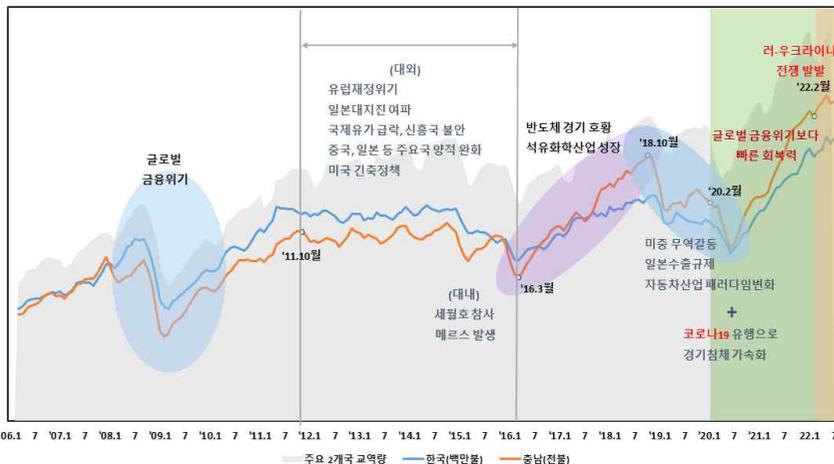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 통계, MTI 3단위 기준

□ 장기 시계열로 알아본 총남의 교역 동향

- [2009-2011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 대외거래 증가
 - 철강(현대제철 본격적인 고로 생산 증가), 자동차 등 제조업 성장, 대중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을 견인
- [2012-2016년 : 정체] 지역 경기 장기 침체기 = 대외거래 정체기
 - 유럽재정위기로 유럽과 신흥국인 중국 등은 확장정책을 실시(저금리)
 -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유동성을 미국은 거두어 드린 기간(긴축기, 금리인상)
 - 국내에서는 메르스 등 전염병 확산을 경험, 세월호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시기
- [2017-2018년 : 회복] 반도체 경기 회복, 대외거래가 활발
 - 자동차 수요 정점 도달, 철강산업 둔화, 반면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전반적 경기는 호조, 유가상승으로 석유화학산업도 성장
- [2019-2020년 : 둔화] 세계화 붕괴, 코로나19 확산
 - 4차산업혁명 등 IT 수요는 여전, 스마트폰 등 전통적 반도체 경기를 이끌던 산업이 위축되며 반도체 산업 성장세 둔화
 - 미중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세계화 붕괴 속도 확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지속,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환경 변화가 가속화
- [2021년 - : 빠른 회복] 지연소비 증가, 빠른 산업 전환, 자국 중심 주의 확산
 -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의 증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빠른 산업 전환 등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높은 회복력
 -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직접적인 대외거래 둔화 요인으로는 미미

[교역(수출+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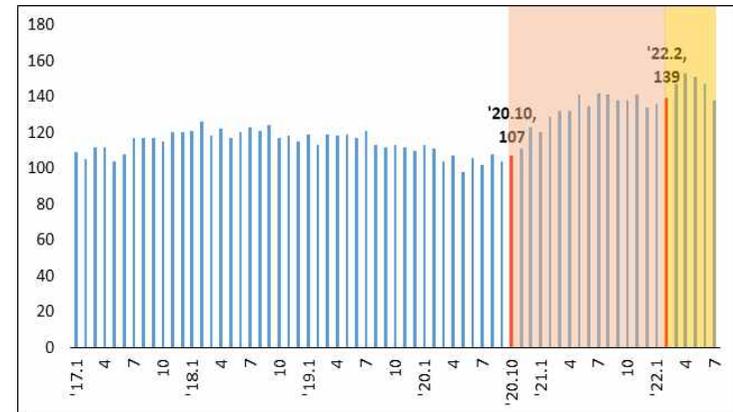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 주요 2개국은 중국과 미국임, 각 국가별 교역량(수출+수입)은 3개월 이동평균한 수치임

[원자재·물가 상승에 따른 간접적 영향 지속]

- (원자재가격)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 최근 안정세 시현
 - 코로나19 초기 글로벌 수요둔화로 하향 안정세 → 2020년 10월 기점으로 경기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도 상승
 -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승하던 가격은 하반기 점진적 안정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
 -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제기 등)하여 주요 원자재가격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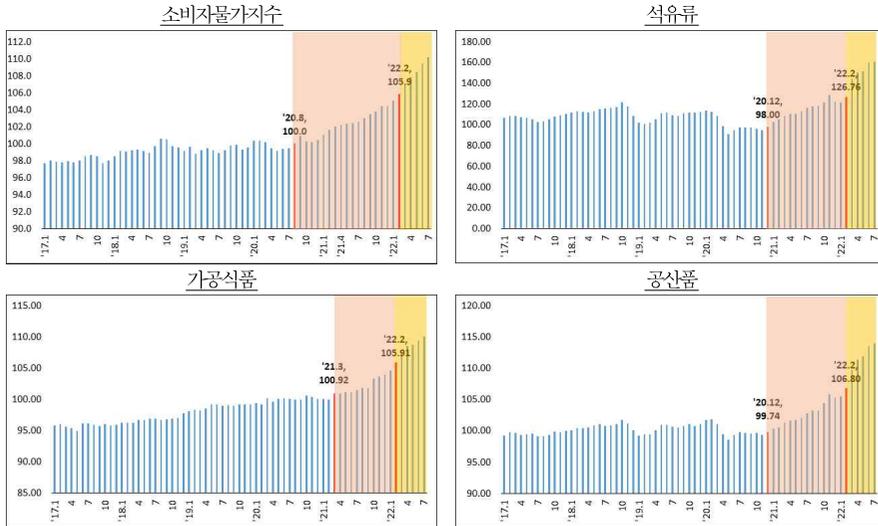
[원자재구입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 (물가) 유가, 곡물 등 원자재 중심으로 심리적 상승 압박 → 석유류와 공산품, 가공식품 물가 상승을 견인
 - (전반적 물가) 코로나19 이후 20년 10월 이후 점진적 상승
 - (석유류·공산품·가공식품) 우크라이나 상태 전후로 급격한 상승세 시현
 -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에너지 또는 곡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다만, 거래가 많은 유럽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부족 사태보다는 불안 요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
 -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승한 제품가격으로 인한 체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을 유지

[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

[피해 기업 동향]

- 정부 등 유관기관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
 - 긴급자금 지원으로 운영자금 융통(중소기업지원공단, 저금리), 일시적 운영자금 (원료 구입 등) 문제 해결
 - 수산물 수출업체 단체보험(한국수산물무역협회) 가입으로 미회수 수출대금 회수
 -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미회수 수출대금 5만불 보상, 이후 보험공사 추심과정에서 거래처와 연락이 제기, 월마다 일정 수준으로 변제하기로 약속
 - 매출 회복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석(aT, 코트라, 충남경제진흥원) : 새로운 거래처 확보로 지난해 매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거래 지속
 - 미회수 수출대금 회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거래처와의 신뢰 회복, 재건 이후 지속적인 거래를 약속
 - 러시아 거래물량은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다만 원부자재, 운송비 증가로 가격경쟁력은 약화
 - * 금년 매출(6월 기준) 지난해 대비 약 5억 5천('21.6월 누계 총 매출 약 40억원)

○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영향

- 부자재(포장지, 필름, 식용유 등) : 원자재가 상승으로 제품가도 약 30-40% 상승
- 김 특성상 원자재가 상승분을 제품가로 전이하는 것은 한계 → 신제품 출시, 용량 조절로 해결 중

○ 인건비, 운송비 상승도 여전히 부담

-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하는 것만으로 부담, 코로나19 이전에 신청한 외국인 인력이 최근 확보, 다문화가정 직원을 활용 중
- (운송비) 내륙운송 비용 부담 증가, 물류난으로 부산항 대기 가능 시간이 4일로 축소 (예전 선적 10일-2주전 가능) 수출 물량을 생산·운반하기 위해서 내륙 물류업체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산 인근에 제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 유럽 운송은 부산항, 동남아는 광양항을 이용 중
 - * 평택, 인천, 군산 등 인근 항만을 이용하고 싶지만 스케줄에 맞는 배가 없고, 선사는 수요가 부족하니 배 배정을 하지 않는 악순환

[3]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요약]

- (경과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교역, 피해사례, 공급망 우려 품목에 대한 지역 동향 분석·보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충남과 교역관계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수출입 영향은 미미
 -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던 경기흐름이 소폭 둔화에 그쳤으나 이후 회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직접적인 영향이 있던 수산물 수출은 우크라이나로 수출은 급감하였으나 충남 전체로는 전년동기보다 증가하며 호조
- 다만, 교역관계가 두터운 유럽으로 에너지·곡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간접적 영향을 시사
 - 러시아 가스·원유 수출 감소로 국제유가 상승, 심리적 영향 반영으로 금등세 시현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질로 인근 유럽국가 직접적인 식량 부족 사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방요인으로 작용

- 도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등으로 위기를 극복, 수출다변화를 통한 활력 도모 중
 - 하지만 상승한 원자재가격과 물류난 등으로 인한 부침은 여전한 모습
- 또한 원자재가 상승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물가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하방경직성을 고려할 때 물가 하향 안정세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
 - 향후 물가상승 등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도내 기업·가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정책적 제언]

① 기업지원정책의 유연화

- 긴급 기업지원 자금 확대 및 빠른 지원 체계 구축
 - 우선적으로 위기극복자금 조성을 통한 상시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
 - 기존 기업지원 자금활용에 유연성을 강화,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정부-지자체간 기업지원정책 연계 강화
 - 충남도 차원의 지원정책도 중요하나 동일한 위기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양상, 피해규모, 피해산업·업종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정부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원 체계도 필요
 - * ex) 쌍용차 협력업체 750억 지원(산업부-경기도-신용보증기금)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기관별 지원사업(부록1)

② 지역 차원의 위기특별지원산업 지정

-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중복지원 등 일시적 특례 허용
 - 정부의 산업,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같은 파급력 보다는 다소 약하더라도 위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허용 등 한시적으로 운영
 -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위기 대처를 위한 선택은 수출다변화를 위한 노력, 충남경제진흥원, AT, 코트라 등 무역 증진을 위한 유사 사업에 모두 지원하여 기회를 넓힌 것
 - * 해외박람회 부수 지원 : 1회 약 500만원 지원(부수비+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소진

③ 일원화된 위기관리 창구 마련과 활력 도모

- 상시 운영이 가능한 위기관리 기능을 탑재한 애로사항 청취
-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체계 구축으로 기업 참여 독려
 - * 충남경제진흥원내 애로사항 청취 기능이 있으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부재

④ 기타(중장기 과제)

- 서해안 거점 항만 활성화 정책 수립
 - 글로벌 물류난과 운송비 상승 등 국내 공장 입지 여건이 변화(원료생산지 → 항만 인근)
 - * 일부 원료생산지 인근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던 산업도 최근에는 항만 인근에 공장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로 변화(원료를 운반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의 산업)
 - 전산업에서 생산 비중이 낮은 산업은 주요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소외되는 실정
 - 서해안에는 인천항이 있지만 수입수요에 집중된 항만으로 수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수출중심 항만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 인천과 평택, 군산 등 서해안 항만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도 중요

부록 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기관별 지원사업

기관명	지원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특례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전용물류이용권 분야 신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원회 긴급금융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KDB산업은행)
	중소·중견 지원자금(KDB산업은행)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수출입은행)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IBK기업은행)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전은행 공통)
한국무역협회	대체시장 발굴사업
	무역진흥자금 추가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5건)
	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보험 사고,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 실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수입보험 지원확대
KOTRA	긴급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전문 외국 변호사 자문 상담
관세청	세정지원(관세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특별통관 지원(긴급 조달 필요 물품, 반송화물 대상 신속통관, 적재기간 연장)

부록 2 : 기관별 애로접수 창구 운영 현황

기관명	대응창구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긴급대책반
KOTRA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
전략물가관리원	러시아데스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애로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KDB산업은행	금융애로 상담창구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KOTRA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각 주요 세관별)
민관합동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